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2010년 10월호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

환영합니다! 아마도 이번 호 잡지가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도
알아차셨을 것입니다.

일 년 전에, 성전 예배를 다루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성전을 조명한 책자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을 개정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책자가 일부 언어에서 절판되자 회원들은 어떻게 이 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책자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메시지가 실려 있지 않으며 마지막 판이
출판된 이후에 건립된 여러 성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재발행이 아니라 개정을 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개정판은 이전 판에 실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지만
개정판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더 폭넓은 독자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전 책자를 교회 배부 센터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가정에서 이 책자를 구비할
수 있도록 모든 *리아호나* 및 *Ensign*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에 배부 센터에서도 여러 언어로
출판된 책자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은 이번 호에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상호부조회 메시지가 빠져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자 내에서 메시지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이들의 필요에 맞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기사는 여러 가족에게 훌륭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겹표지 뒷면 안쪽에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도 실려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보내드리면서, 성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교리와
신성하게 제정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의식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노력하는 가족과 개인들에게 이
책이 위안과 인도와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고 모집

1. **물문경**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특정 구절이나 새로 깨달은
내용 또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성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물문경 구절에
대한 경험이나 간증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church.org

2. **질의응답란**에 실을 기사로, 다음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문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의 답변과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church.org

2010년 10월호, 제47권, 제10호
리아호나 09290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호스트로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렌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교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기쿠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데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레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진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켄 포터 곤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던,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셀리 제이
오데커, 조슈아 제이 페커, 체드 이 페라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헬름, 톰
엘 설,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듀셔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트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마티크,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어, 지니 레이 닐슨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1호, 제47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o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8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자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kr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10 Vol. 34 No. 10. LIAHONA(J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
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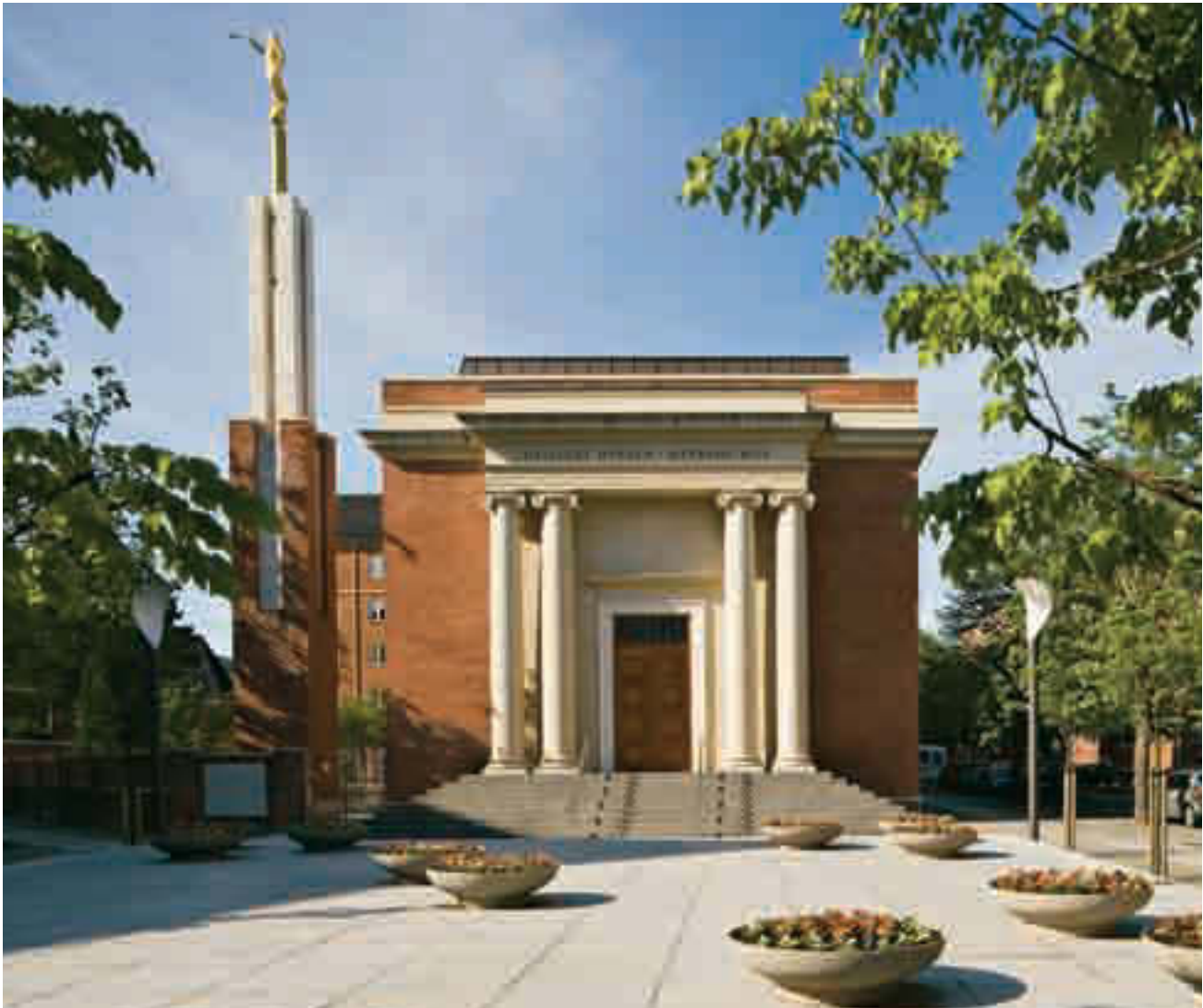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진과 삽화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판권이 있거나 화가 또는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아 게재했습니다.

발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 2010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8/09, 09339 320

사진 및 삽화:

4~5쪽: © Robert A. Baird
 5쪽: © Altus Photo Design
 6쪽: © Val Brinkerhoff
 7쪽: © Scott Cannon
 8~9쪽: © Fredy Apaza Ramirez
 10쪽: © Val Brinkerhoff
 54쪽: *아론을 성직에 부르는 모세*, 해리 앤더슨, © IRI.

55쪽: *성전 헌납식에서 기도하는 솔로몬*, © Robert T. Barrett; 복사 금지
 뒤표지 안쪽: © Martin Van Hemert
 뒤표지: © Robert A. Baird

목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성전을 주님의 집이자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본 책자에서 성전의 목적과 중요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에 담긴 영원한 의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본 책자는 인터넷 temples.lds.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 주님의 집 사진

12 성전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8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36 성전을 열망하는 백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40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52 성전 역사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60 성전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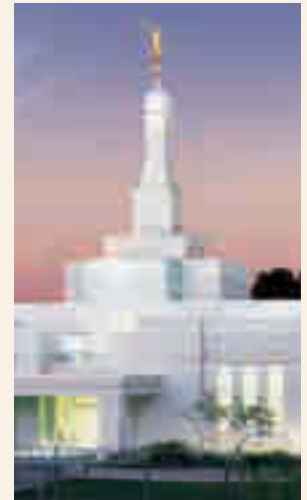
68 성전 봉사, 성전 축복 *그 어떤 희생보다 값진 성전 결혼* 게오바니 메디나

성전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프란세스 더블류 호지슨

72 어린이: 성전으로 가는 길

76 청소년: 성전을 여러분 삶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79 자주 묻는 질문



◀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2004년 5월 23일 헌납.

▲ 호주 애들레이드 성전. 2000년 6월 15일 헌납.

앞표지: 솔트레이크 성전. 1893년 4월 6일 헌납.

뒤표지: 오리건 포틀랜드 성전. 1989년 8월 19일 헌납.

주님의 집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 구 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성전은
그분의 배움터였으며,
그분 생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축복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 번 열리게
되었습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만유의
회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7쪽)

◀ 워싱턴 디시, 성전, 1974년 11월 19일 헌납.

▲ 분수, 테네시 내슈빌 성전.





“우리는 조상을 찾아내고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구원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죽은 자의
구속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쪽)

- ◀ 스테인드글라스, 뉴욕 필마이라 성전(맨 왼쪽).
- ◀ 중국 홍콩 성전, 1996년 5월 26일 헌납.
- ▲ 아치, 유타 바운티풀 성전.





“침례의 물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과정은 주님의
집에서 계속되며
확장[됩니다.] …… 우리는
거룩한 성전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완전하고 온전히
받습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8쪽)

◀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 2000년 4월
30일 헌납.

▲ 석조 건축 부분 확대,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빛나는 영광 속에서,
성전은 그 광채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손짓하는 듯합니다. ‘오라!
주님의 집으로 오라.
지친 이들은 휴식을 얻고
영혼은 평화를 찾으리.’
…… 집, 즉 하늘로
향하고 가족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전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준비시켜
줍니다.”(토마스 에스
몬스, “잊을 수 없는 날”,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77쪽).

- ▲ 울타리,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
- ▶ 가나 아크라 성전, 2004년 1월 11일 헌납.







성전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6대 회장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보다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 한 편을 조금 바꾸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먼가?

그리 멀지 않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¹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성전 외부에 새겨진 글귀처럼 성전은 “주님께 거룩”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고양되고 고취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을 배웁니다. 영원한 성약도 맺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고양되고, 고취됩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햇불처럼 우뚝 서 있으며, 우리는 해의 영광으로 인도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배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혼에 평안을 얻습니다. 이는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페루 리마 성전. 1986년 1월 10일 헌납.



성전을 어루만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집에 가고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고취시킵니다.

성전은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인 가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매우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며,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의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인봉된 경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셨던 작고하신 매튜 코울리 장로님은 어느 토요일 오후, 생일을 맞은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동물원이나 영화관이 아니라 성전 뜰에 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두 사람은 성전에서 가장 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은 손녀딸에게 견고한 벽과 거대한 문에 차례로 손을 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을 어루만진 일을 기억하렴. 언젠가 너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다.” 장로님은 어린 손녀에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경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주님의 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손녀딸은 성전을 어루만졌고, 성전도 손녀딸을 어루만졌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성전을 어루만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집에 가고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배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혼에 평안을 얻습니다.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²

후기 성도들에게는 큰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 기회를



주님께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며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의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인봉된 경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4월 6일 헌납, 1975년 11월 11일 재헌납.



만 12세 이상인 합당한
청남 청년은 침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하여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³

저는 잠언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⁴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의무를 다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의식을 행할 특권을 누리며 그분의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영원히 결속시키는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해 성스러운 제단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만 12세 이상인 합당한 청년 청년은 침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하여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전, 겸손하고 충실한 축복사였던 퍼시 케이 펫저 형제님은 철의 장막 너머에 사는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펫저 형제님은 그 암울한 시기에 폴란드 땅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은

▲ 필리핀 마닐라 성전. 1984년 9월 25일 헌납.

▶ 유타 바운티풀 성전. 1995년 1월 8일 헌납.

봉쇄되었고 그 어떤 국민도 그 나라를 떠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펫저 형제님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국경이 재조정되어 거주 지역이 폴란드 영토로 귀속됨에 따라 꿈쩍없이 갇히게 된 독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살던 에릭 피 코니에츠 형제님이 그 독일 성도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펫저 형제님은 코니에츠 부부와 그 집 큰 아이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펫저 형제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 사무실에 와서 앓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코니에츠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을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코니에츠 부부에게 그들이 조국 독일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점령국들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집에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리란 걸 형제님도 저도 잘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펫저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잘 압니다.

분명히 형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 헌신적인 가족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다른 축복들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 지도자들과 독일 연방 공화국 지도자들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니에츠 가족은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코니에츠 형제님은 소속 와드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코니에츠 가족은 다 함께 스위스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갔습니다. 흰 양복차림으로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한 성전 회장은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바로 그 가족에게 약속을 준 펫저 축복사였습니다. 스위스 베른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그분은 코니에츠 가족을 주님의 집으로 맞이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인도했고, 남편과 아내를 인봉하고 자녀들을 부모에게 인봉했습니다.

어린 딸은 마침내 주님의 집에서 결혼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부름장을 받아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의식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그분의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을 배웁니다. 영원한 성약도 맺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고양되고, 고취됩니다.

“성전에서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몇 구획만 가면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바다를 건너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로데시아 솔즈베리라 불리는 지역에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지방부 회장인 레지널드 제이 닐드를 만났습니다. 저는 집회소에 들어가다가 그와 그의 아내와 사랑스런 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여행할 날을 위해 저축하고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전까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랑스런 네 딸이 제게 성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생겼나요? 저흰 사진밖에 못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약 한 시간 동안 네 딸에게 주님의 집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떠나는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막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요!”

일 년 뒤에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닐드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인봉실에서

저는 닐드 부부를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딸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껴안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이것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여 성전이 우리 삶과 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얼마나 멍니까? 저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은 전혀 멀지 않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1. 마태복음 6:19~21.
2. 요한복음 14:27.
3. 마태복음 22:37~39 참조.
4. 잠언 3:5~6.



평화로운 인봉실에서
저는 닐드 부부와
딸들을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 스위스 베른 성전. 1955년 9월 11일 헌납. 1992년 10월 23일 재헌납.

▲ 인봉실, 솔트레이크 성전.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5대 회장

성전은 인생에 관한 질문에 영원한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죽음은 인생에서 맺은 값진 관계들을 앗아가 버릴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아볼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말씀으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이러한 질문과 그밖의 영원에 관한 질문에 답을 얻는 성스러운 건물입니다. 모든 성전은 주님의 집, 곧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함과 평화의 장소로 성별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한 진리와 의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신성한 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영원한 존재로서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며 생활하도록 동기를 얻습니다.

성전은 목적과 기능면에서 그 어떤 종교 건축물과도 상이합니다

이 건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정규 집회소와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영원에
관한 질문에 답을 얻는
성스러운 건물입니다.



현대에 세워진 성전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은
창조주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크게
강조합니다.

목적과 기능면에서 그 어떤 종교
건축물과도 상이합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나 건축학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규 예배 장소와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건물을 지정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관습으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더 성스럽게 여긴
첫 번째 장소는 광야에서 사용한

성막이었으며,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전이며, 이곳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집행되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대중에게 건물을 두루
다니면서 다양한 시설을 살펴보게
합니다. 하지만 헌납이 끝나면 성전은
주님의 집이 되고 매우 성스러운 곳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회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사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피조물인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여 줍니다. 성전 사업은 상당 부분 가족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자 지상에 있는 가족의 일원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신성함과 영원한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사업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반복해서 배우는 사람은 유익을 얻습니다. 아름답고 인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교리를 명확하게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고, 형제이자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자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28, 30~31)

현대에 세워진 성전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은 창조주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크게 강조합니다.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고귀한 원리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필멸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하도록 북돋아 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상 생활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배웁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이를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참여자들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교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값진 가족 관계는 다음 세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부모의 자녀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신성한 조직이며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성전 사업의 상당 부분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했고,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갈 것이고, 세상에서 맞볼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가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세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부부는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맺어집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국법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어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으로 맺어집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자신들이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부부 관계나 자녀와 맺은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그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 가운데 다음 세상에서 그 자녀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속성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게 구현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마땅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를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영생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속성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게 구현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에서 얻는 축복이 기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불공평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최대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성스러운 계시를 통해 교회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죽은 이들도 자신을 대신하는 살아 있는 대리인을 통해 똑같은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침례, 결혼, 가족 인봉 등

자신을 위해 지상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없으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성전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봉사입니다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비길 데 없는 큰 사랑에서 비롯된 봉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은 자를 찾고 확인하는 방대한 가족 역사 탐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 역사 탐구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는 가족 역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록 보관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조상에 관해 조사하는 비회원들도 이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계보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여러 국가는 자국이 보유한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교회 회원들이 조상을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가



죽은 이들도 자신을 대신하는 살아 있는 대리인을 통해 복음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침례반,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



참으로 성전은 모든 건물 가운데 독보적이고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가르침의 장소요, 성약과 약속을 맺는 곳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누리는 기쁨을 조상들도 맛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돌아가신 조부나 증조부나 다른 조상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성전은 인생에서 참으로 값진 것들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계시자 요한이 본 시현을 연상시키는데 이 시현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요한계시록 7:13~15)

이 거룩한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합당함을 인정받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몸과 마음과 복장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행위라 지칭하여 말해 보자면, 우리는 이 행위를 수행하는 자체로 큰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사는 시대에,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내세로 가는 영원한 여정, 그리고 우리에게 영과 몸과 정신을 물려준 앞서가신 조상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함께 교제하게 될 다음 세상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이런 기회는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참으로 성전은 모든 건물 가운데 독보적이고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가르침의 장소요, 성약과 약속을 맺는 곳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성전의 그 성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 희생을 치르신 주 예수

▲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1985년 7월 2일 헌납.
▶ 유타 맨타이 성전. 1888년 5월 21일 헌납. 1985년 6월 14일 재헌납.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는 의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신권 권능으로,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인봉 의식을 통해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으로 맺어집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은 후기 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기에도 세워졌으며, 빈곤한 시기에도, 번성하는 시기에도 세워지고

유지되었습니다. 성전은 날로 증가하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선지자와 신성한 계시,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증거하는 회원들의 신앙을 통해 성전은 세워집니다.

성도의 벗, 1992년 6월호, 3~8쪽에서 발췌.

빈곤한 시기에도,
번성하는 시기에도
세워지고 유지되었던 이
성스러운 건물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날로
증가하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성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구원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고 싶어할 이유는 많습니다. 심지어 성전 외형에서도 이 건물의 깊은 영적인 목적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적은 건물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 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든 헌납된 성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곧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합당하게 준비한 교회 회원은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높은 구원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통해 씻음과 기름 부음과 가르침과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똑같이 행해집니다.

성전 의식은 단순하고 아름답고 성스럽습니다

경전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지식을 얻으려면 그 전에 만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의식이 그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는 성전 의식에 관해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의식에 관한 지식을 선택된

성전 안에서,
성 합당하게 준비한
교회 회원은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높은 구원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의식에 관해 절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도록 온 힘을 다해 권고합니다. 성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언젠가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고 성전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얻으며, 만일 이러한 기회를 거부한다면,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성스럽습니다. 이 의식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식 자체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려면 예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는 신앙, 회개, 침례, 확인, 합당성,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아 오는 사람이 지녀야 할 성숙함과 고결성 등이 포함됩니다.

합당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받습니다.

일단 성전 축복의 가치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신성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주님께서 기록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세우신 높은 표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이 추천서에는 적절한 교회 역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합당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해 질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접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임된 종과 함께 자신의 생활 방식을 살펴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활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감독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승인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거나 합당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 접견은 감독과 교회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행해집니다.

오직 합당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해 질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려면 예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는 신앙, 회개, 침례, 확인, 합당성,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아 오는 사람이 지녀야 할 성숙함과 고결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접견에서 회원은 개인적인 행실과 합당성과 교회와 교회 역원에 대한 충실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받습니다. 접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교회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감독은 각 사람과 접견한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감독의 질문에 수궁할 만한 대답을 하면 대개는 그 개인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접견 받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서 시정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성전 추천서를 받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감독이 그와 같은 접견을 하고 나면, 스테이크 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견을 하며 그런 후에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상징적입니다

처음으로 성전에 가든 여러 번 가 보았든, 성전에서는 상징으로

가르친다는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서도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위대한 학교이며 학문의 집입니다. 성전은 심오하게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그에 걸맞은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님은 명문 대학 총장이었으며 세상에 잘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대단히 경외하셨으며,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 온 구원의 계획 전반을 아우르며, 난해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 줍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왜곡하거나 변형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엔다우먼트가 철학적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은 성전 의식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여기 나오는 복음 계획에 대한 완전한 개요와 설명 덕분에 성전 예배는 복음의 전체적인 골격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Temple Worship”,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처음으로 성전에 가든 여러 번 가 보았든, 성전에서는 상징으로 가르친다는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서도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암흑 속에 환히 밝혀진,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은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상에 횃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권능과 영감을
상징합니다

1921년 4월호, 58쪽)

만일 성전에 가면서 그 가르침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야가 넓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커져서 합당한 영을 지니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참으로 훌륭하고 영감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 즉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밤에 환하게 불이 켜진 성전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알 것입니다. 암흑 속에 환히 밝혀진,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은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상에 횃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권능과 영감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평상복을 벗고 흰 성전복으로 갈아 입습니다. 옷은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데 각 개인마다 옷을 갈아입을 장소와 옷장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성전에서는 정숙이라는 개념을 철저히 지킵니다. 옷을 옷장에 둘 때에는 근심과 걱정과 혼란도 옷과 함께 남겨 둡니다. 작은 개인용 탈의실에서 흰 옷으로 갈아 입고 나오면 모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결혼은 궁극적인 성전 의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전 결혼을 고대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인봉 의식 때 사용하는 말을 성전 밖에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봉실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영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곳이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해 기록해진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봉 의식을 받고자 남녀 한 쌍이 제단으로 가기 전에 의식 집행자는 젊은 남녀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젊은 남녀는 그것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때에 젊은 부부는 다음과 유사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두 분은 결혼에 대한 감흥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의식을 위한 성소로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곳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두 분은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의

▲ 일본 도쿄 성전. 1980년 10월 27일 헌납.

만일 성전에 가면서 그 가르침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야가 넓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커져서 합당한 영을 지니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막을 준비하신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인 침례는 정결과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며 새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죄 사유함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베푸신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성약대로 생활한다면 계속 죄 사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신권을 받았습니다. 우선 아론 신권을 받고 그에 속한 직분인 집사, 교사, 제사 직분을 모두 거쳐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따른 신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앨마서 13:18, 힐라맨서 8:18,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으로 불립니다. 형제님은 그 신권의 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장로입니다.

두 분은 각자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잠재력에 이를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와 준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자유롭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양육하여 언젠가 그들도 두 분과 같이 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두 분은 자의로 이곳에 왔으며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성약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며 무한한 축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인봉 권능은 하늘과 땅에서 매어 줍니다

성전 사업의 역사와 교리를 알고 싶다면 인봉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봉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열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모든 복음 의식은 성전에 와서 남편과 아내로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보다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사업도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태복음 16:13, 16~19)

베드로는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인봉 권능, 곧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권능이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 회장 곧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인봉 권능은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상에서 이와 같은 인봉 권능을 위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모든 성전에는 인봉 권능을 받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이 권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충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한복음 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집은 왕국이라고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에 이른 사람은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율법과 완전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6:184)

성전 사업은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근원입니다

성전은 교회에 있는 영적인 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하고 영감 받은 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대적은 교회 전체와 우리 각자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성전 사업은 후기 성도와 교회 전체에 매우 큰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므로 이처럼 큰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유타 로건 성전 정초식에서 당시 제일회장단 일원이었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놓여진 모든 초석과, 주님께서 성신권에 대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는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능과 경건성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움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그분의 면전에 거하는 이들에게 내리도록 합니다.”(“The Logan Temple”, *Millennial Star*, 1877년 11월 12일, 743쪽)

교회 회원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큰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종종 성전에 갑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즉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먼지가 가라앉고 안개와 아지랑이가 걷혀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수행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 축복은 성전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방패와 보호막으로 보호해 줍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보다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사업도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한 백성으로서 방패와 보호막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기록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책자, 2002년)에서 발췌



“성전에 놓여진 모든 초석과, 주님께서 성신권에 대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는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능과 경건성을 증대시킵니다.” 조지 큐 캐넌 회장

▲ 브라질 쿠리치바 성전. 2008년 6월 1일 헌납.



성전을 열망하는 백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4대 회장

성전은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성전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성전에 간 다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특권입니까? 성전 사업은 비이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분 백성이 성전을 열망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놀라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성전을 교회 회원을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커틀랜드 성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권고에서 언급하신 태도와 의로운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교리와 성약 88:119)
참으로 우리 각자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습에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쏟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들 없이는 하나님

가 정에 성전
사진을 비치하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1985년 6월 29일 헌납, 2002년 9월 7일 재헌납.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커틀랜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성전을
열망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교회 회원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이 성전
추천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것을
항상 소지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전까지 거리가 멀어 추천서를 곧바로,
또는 자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이며,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시간과 재정과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이자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주님께 거룩한

▲ 커틀랜드 성전, 1836년 3월 27일
헌납.

▶ 유타 로건 성전, 1884년 3월 17일
헌납. 1979년 3월 13일 재헌납.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받는 영적인 느낌을
자녀들과 나누시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해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진지하고도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가르칩시다. 가정에 성전
사진을 비치하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성전에 가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계획을
세우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갈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생전에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고 부부 인봉과 가족 인봉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합당하게 자신을 대신해 모든 의식을
받아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위해 성전에
가서 그와 같은 구원 의식을 받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성전이 우리에게 한 상징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 삶의 최고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과
믿음에 관한 유일하고 성스러운 표준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던
시장에 있던, 학생이든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든, 모든 일을 홀로 하고
있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하고 있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표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원리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에 진실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참된
원리를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원리들을 온 영혼을
다해 깊이 간직하며, 영원토록 소중히
여기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원리에 참되고 충실하면,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것이며,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2~7쪽;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2~7쪽에서 발췌.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니다. 시간과 재정과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성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이 문구는 성전과 성전의 목적이 거룩함을 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² 성전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은 다른 예배 장소와는 다릅니다. 집회소와 달리 성전은 안식일에 문을 닫아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날에 가족과 더불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사업을 위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립니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이며, 영원토록 중요한 의식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

의식에는 침례, 결혼, 엔다우먼트, 인봉 등이 포함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상징하며, 사후의 삶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공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들 없이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성전 의식은 신성한 약속을 맺는 행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엔다우먼트를 받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며, 사후의 삶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공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텍사스 휴스턴 성전. 2000년 8월 26일 헌납.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여러분은 이생을 떠난 후에 ……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엔다우먼트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 은사를 받을 때 맺는 성스러운 성약과 의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 “성전 의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신성한 약속을 맺는 행위입니다.”³

성전 엔다우먼트라는 의식은 계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엔다우먼트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청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여러분은 이생을 떠난 후에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들 곁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⁴

성전에서 맺는 성스러운 성약에 순종하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해집니다. 각 성전에서는 신권의 인봉 권세가 행사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왕이나 대통령, 세상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의 관리도 무덤 너머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봉 권세를 받은 가장 겸손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제사는 땅에서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맨 수 있습니다.”⁵

신권이 시작이나 끝이

없이 영원하듯이 신권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⁶ 따라서 신권 의식과 성약도 시간을 초월합니다.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준 첫 번째 계시에도 이 신권 권세가 언급되었습니다.⁷ 훗날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성전에 관해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⁸

우리는 바로 그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 의식, 성약, 엔다우먼트, 인봉은 예언된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의식은 주님과 화합하게 해 주며,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봉합니다. 성전에서 맺는 성스러운 성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해집니다.⁹

기꺼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므로 주님께서서는 이곳을 성스럽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라는 개념은 다른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 입학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 지적,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는 추천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신권 권세의 열쇠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성전 추천서 접견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되도록 돕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일을 돕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부정함 것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¹⁰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견은 책임의식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감독단과 부모, 가족, 스테이크 회장단, 교사, 정원회 고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해, 추천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들어가려는 집의 주인이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표준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님으로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모든 성인 회원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형적, 지적,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한 복장을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준비합니다. 성전은 평상시에 입는 복장으로 참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우리 몸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특히 준행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소지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독단 및 스테이크 회장단과 하는 성전 추천서 접견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접견은 위대한 심판자 앞에 서서 중요한 대담을 할 그 날을 준비하는 의미심장한 ‘총연습’일 수도 있습니다.”¹¹

성전에 가기 위해 외형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이제 성전 추천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한 복장을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준비합니다. 성전은 평상시에 입는 복장으로 참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후기 성도 선지자들은 우리 몸을 존중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이 점을 특히 준행해야 합니다.¹²

성전에서 모든 사람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흰옷을 입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백성을 받아들이신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¹³ 연령, 국적, 언어, 교회 직분마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회장님이 함께한 엔다우먼트 의식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의식실에 있는 모든 사람과 회장님은 한결같이

숭고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란히 앉았으며 주님 눈에 모두가 동등했습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¹⁴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신랑과 신부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신부는 모양과 옷감이 수수하며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은 긴 소매로 된 흰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은 턱시도나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아무리 값싼 옷일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 모임이나 훌륭한 품위 있는 자리에도 거리낌 없이 참석할 수 있을 그런 복장을 해야 합니다.”¹⁵

성전 의복에 관련해서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솜씨와 여건이 된다면, 그들은 가족들에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수놓은 손수건이나 그 밖에 성전복 물품을 선물하면 그것은 사랑스러운



성전에서 모든 사람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흰옷을 입습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 1985년 8월 24일 헌납.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성전 의복과 관련하여
훌륭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성전 가먼트는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전 가먼트를 입은 일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주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모범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가먼트를
입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맺은 영원한 성약을 믿는
신앙을 표출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이 주제에 관해
교회 회원들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엔다우먼트의 참뜻에 맞게
가먼트를 착용하겠다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도 그 성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가먼트를 입은 교회 회원은
성전에서 평생 가먼트를 입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밤낮으로 항상
가먼트를 속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보호와 축복에 대한
약속에는 그 성약을 충실하고 합당하게
지킨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가먼트를 반드시 입고,
가먼트를 벗어야 할 경우를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수영복이나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집 안에서 편히 있기 위해 가먼트 일부나 전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락 활동에 참여할 때, 가먼트 위에 평상복을 적절히 입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가먼트를 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영과 같이 가먼트를 벗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먼트를 다시 입어야 합니다.

정숙함과 적절하게 몸을 가리는 원리는 성약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복장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기억하기 위해,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먼트를 입습니다. 구주를 따르겠다는 내적 결심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가먼트를 입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¹⁶

성전에 가기 위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외형적 준비와 더불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성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전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집니다. 성스러운 일들은 성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학문의 집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¹⁷ 성전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세상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익숙한 방법과 다르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 시대 때부터 성전

의식과 성약은 복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상징을 사용했으며, 이 교육 방법은 오늘날 성전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상징을 깊이 생각하고 각 상징이 의미하는 위대한 실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⁸ “성전 의식에는 평생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배워야 할 만큼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¹⁹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가르침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지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전에 가는 회원들은 경전 안내서를 펴고 “기름 붓다”, “성약”, “희생”, “성전” 등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도록 권고합니다. 출애굽기 26~29장과 레위기 8장을 읽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값진 진주에 나오는 모세서 및 아브라함서와 더불어 구약전서는 성전 사업이 고대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의식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보호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할 때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약입니다. 우리는 성약이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제약이 아니라 보호로 여겨야 합니다.



이 학문의 집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 핀란드 헬싱키 성전, 2006년 10월 22일 헌납.



무한한 속죄가 없다면 온 인류는 아무런 희망 없이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속죄에서 발휘되는 구속하는 권능을 가르칩니다.

그분과 맺은 성약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개념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가령, 상수도 수질이 의심될 때 우리는 정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성약은 위협과 해가 되는 것들을 걸러내 우리를 보호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면²⁰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만 알려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전 성약을 지키는 일은 구속이 아니라 힘을 얻는 일입니다.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능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질퍽한 눈을 느릿느릿 헤쳐가는 일과 초음속 제트기로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일에서 보이는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보호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강조해야 할 두 번째 개념은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속죄는 구원의 계획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무한한 속죄가 없다면 온 인류는 아무런 희망 없이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속죄에서 발휘되는 구속하는 권능을 가르칩니다.

영생은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을 얻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사업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짐으로써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²¹

이생에서 참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멸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승영을 얻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사업의 목적, 즉 “나의 일[과] 나의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²²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멸이라는 은사는 조건 없이, 온 인류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한 인봉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신권 권능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거나 영원히 결혼할 수 있고, 자녀가 영원히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영원한 가족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맺은 성약과 그곳에서 받은 의식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 곧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다.²³

성전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 곁을 떠날 때 가장 의미있어집니다.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보통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²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부여한 이 신권 권능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거나 영원히 결혼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영원한 가족으로 존속되고, 죽음으로도 가족관계는 분리되지 않게 됩니다.”²⁴ 영원한 인봉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만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직시할 수 있습니다.²⁵

성전에서 얻는 영원한 관점은 인생에 불어 닳치는 시련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영원한 관점을 얻으면 우리가 맺은 성약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증명서가 됩니다. 그 증명서를 합당하게 받는 것은 일평생 추구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후에 그것을 지켜 나가는 일은 지상 생활의 과제입니다.”²⁶

성전 의식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조상들의 영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²⁷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주님께서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속죄를 이루신 것을 본받아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리 사업을 행하며 성전 예배를 계속할 기회를 얻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를 만나 뵙고 심판대에서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²⁸ 우리가 성전에서 그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했으며 성약을 지키는 이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생에서 겪는 시련을 견디는 데 힘이 됩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²⁹

성전은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사후의 삶을 믿는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이 위대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Ensign, 2002년 3월호, 17~23쪽에서 발췌



성전은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사후의 삶을 믿는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입니다.

주

1. 출애굽기 28:36; 39:30; 시편 93:5 참조.
2. 출애굽기 19:5~6; 레위기 19:1~2; 시편 24:3~5; 데살로니가전서 4:7;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20:69; 110:6~9 참조; 또한 경전 안내서, “거룩함” 참조.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638쪽.
4.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년), 416쪽.
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639쪽.
6. 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3, 경전 안내서; 엘마서 13:8 참조.
7. 교리와 성약 2:1(1823년 9월 21일에 받음) 참조; 또한 138:47~48 참조.
8. 교리와 성약 124:40~41.
9.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0. 교리와 성약 109:20.
11. 러셀 엠 넬슨,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84쪽.
12. 고든 비 힝클리,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7쪽;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 어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5쪽 참조. 이 기사에서 힝클리 회장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교회는 문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귀고리 한 쌍을 달기 위해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의료 목적 이외에 신체에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참조.
13. Neal A. Maxwell, *Not My Will, But Thine*(1988년), 135쪽; 또한 교리와 성약 100:16 참조.
14. 사도행전 10:34; 또한 모로나이서 8:12 참조.
15. Boyd K. Packer, *The Holy Temple*(1980년), 73쪽.
16. 1988년 10월 10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17. 이사야 55:8~9 참조.
18. John A. Widtsoe, “Temple Worship”,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21년 4월호, 62쪽 참조.
19. 리차드 지 스코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0쪽.
20. 모로나이서 10:32;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6, 경전 안내서 참조.
21. Neal A. Maxwell, *Not My Will, But Thine*, 135쪽.
22. 모세서 1:39.
23. 빌립보서 4:7 참조.
24.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기 편, 전3권(1954~1956년), 2:118.
25. 엘마서 42:8 참조.
26.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25쪽.
27. 교리와 성약 128:15.
28. 니파이후서 9:41.
29.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쪽.

▲ 브라질 헤시피 성전, 2000년 12월 15일 헌납.



성전 역사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1862~1933)
십이사도 정원회

성별된 장소

예부터 지금까지 성전의 핵심 개념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특별히 성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성전은 신성한 의례와 예식을 위해 건축되고 오직 이 목적을 위해 헌납된 건물을 말합니다.

라틴어 *templum*은 히브리어 *beth Elohim*과 같은 의미이며, 하나님의 거처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 시대에 우상숭배자나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신전의 바깥뜰은 전체 모임과 대중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신전 내부는 성별된 제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신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은 특별한 예배 형식을 갖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헌납된 거룩한 장소이며,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집회 장소로 여겨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성막



고대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를 짓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 일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

고대나 현대를
통틀어 모든

성약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임무로
여겼습니다.

◀ 20세기 초반에 촬영된 커틀랜드 성전 내부.



▲ 모세는 성막에서 제사로 봉사하도록 아론을 성임했다.

▲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성막을 이동식 성전으로 사용했다.

땅에서 탈출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님이자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성소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여호와와의 성소로서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성막은 계시로 밝혀진 설계와 세부 지시에 따라 지어졌으며(출애굽기 26~27장 참조), 작고 운반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성막은 비록 천막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가장 훌륭하고 고귀하며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토록 빼어나게 지어진 성막은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헌물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모든 면에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었으며, 여호와께서 이 헌물을 성스럽게 받아들이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들은 실로에 성막을 지었으며 지파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웠습니다.(여호수아 18:1; 19:51; 21:2; 사사기 18:31; 사무엘상 1:3, 24; 4:3~4 참조) 후에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졌으며(역대상 21:29; 역대하 1:3 참조) 다시 다윗성, 곧 시온으로 옮겨졌습니다.(사무엘하 6:12; 역대하 5:2 참조)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님께 드릴 집을 짓고자 계획했습니다.(사무엘하 7:2 참조)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이 제안한 헌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여러 모로 죄를 범했으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사무엘하 7:1~13; 역대상 28:2~3 참조)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집을 지을 재료를 모으도록 허락 받았으며,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곧바로 성전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고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기초를 놓았으며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립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획기적인



▲ 주전 1005년에 완성된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건물 중 하나이다.

▲ 솔로몬 성전 헌납식은 7일간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은 온 이스라엘이 기쁨과 환희로 보낸 거룩한 한 주였다.

일이었습니다.

널리 인정받는 연대표에 따르면 성전은 주전 1005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건축 양식과 구조, 설계와 비용 면에서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헌납식은 7일간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은 온 이스라엘이 기쁨과 환희로 보낸 거룩한 한 주였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로 구름이 성스러운 전을 가득 메웠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여]”(역대하 5:14; 또한 출애굽기 40:35; 역대하 7:1~2 참조) 제사장들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신성모독 당한 솔로몬 성전

이 훌륭한 건물의 영광은 잠깐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헌납 이후 34년,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이 지나자 성전은 영광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쇠퇴는 금세 노락질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실질적인 신성모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의 간계에 이끌렸으며, 완악한 길에 빠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성전은 이내 그 신성성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성스럽지 않은 그곳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한때 애굽에 속박되었다가 구출된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인에게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 모두 빼앗[았습니다.]”(열왕기상 14:25~26) 신성모독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인이 약탈을

저지르고 216년이 지난 후, 유다 왕 아하스는 제단과 물두멍을 떼어 버리고 한때 성전이 서 있던 곳에 집채만 남겨 놓았습니다.(열왕기하 16:7~9, 17~18 참조; 또한 역대하 28:24~25 참조) 훗날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성전에 남아 있던 것을 모조리 약탈해 갔으며,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역대하 36:18~19 참조; 또한 열왕기하 24:13; 25:9 참조)

스룹바벨 성전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약 600년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모두 사악해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지은 성소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일어난 많은 사건을 통해 그분께서 성전을 신성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대략 열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경에 앗수르의 속국이 되었으며 유다 왕국은 1세기 뒤에 바벨론에 정복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으로 알려진 유대 민족은 예언된 대로 70년간 포로로 생활했습니다.(예레미야 25:11~12; 29:10 참조)

그 후 유대인들은 고레스(에스라 1, 2장 참조)와 다리오(에스라 6장 참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왕들이 베푼 호의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에 따라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공사를 감독한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성전은 수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기교면에서나 재료면에서 훨씬 뒤떨어졌지만, 당시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었으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성약의 자녀들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헤롯 성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16년 전에 유대 왕 헤롯 1세는 전반적으로 낡고

훼손되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진 지 5세기가 지난 이 건물은 세월의 영향으로 크게 손상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일어난 많은 사건은 헤롯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신성성을 인지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인들이 성전의 신성성을 무시하고 그곳을 격하시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이름으로 알려졌든, 주님께서는 성전을 주님의 집으로 여기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1~2; 마가복음 13:1~2; 누가복음 21:6 참조) 주후 70년에 성전은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불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성전으로 오셨다.

▲ 배도 기간이 끝난 후, 성전 예배에 필요한 권세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

고대 미대륙 성전



헤롯 성전은 고대 동반구에 건립된 마지막

성전이었습니다. 이

웅대한 건물이 파괴된 이후부터 19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될 시기까지 [그 사이에 존재한] 성전 건물을 언급하는 유일한 기록은 몰몬경뿐입니다. 몰몬경에는 오늘날 미대륙이라고 알려진 곳에 성전이 건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서반구에 건립된 성전에서 집행된 의식에 관한 기록은 더욱 적습니다. 이 백성은 주전 약 570년경에 솔로몬 성전을 모방하여 성전을 세웠는데, 이는 화려하고 비용이 많이 든 솔로몬 성전에 비해

훨씬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5:16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반구에 있는 니파이인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은 성전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제3니파이 11:1~10 참조)

그러나 몰몬경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될 무렵까지 성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니파이 백성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약 4세기 뒤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동서 양반구에 있던 성전은 배도 초기에 사라졌으며, 성전의 정확한 개념은 인류 뇌리에서 사라졌음이 분명합니다.

배도와 회복

수세기 동안 주님께 헌납된 성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 성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건물이 대부분 사치스럽고 웅대하게 건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 어떤 건물은 베드로와 바울, 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헌납되었으며 어떤 건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헌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건물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무수한 예배당과 사원, 교회와 성당 가운데 인자가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세기에 복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대에 존재했던 권능과 특권을 수반하는 성신권이 인간에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 후기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은 1836년 3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헌납되었다.

▲ 슬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하자마자 브리검 영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권세는 성전이 존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거룩한 신권의 성스러운 권세 없이는 성전이 무용지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고대에 있었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고대 율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의 성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조직되고 설립되었습니다.

후기 성도 성전



이 교회는 그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교리와

성약 36:8; 42:36; 133:2 참조) 주님께서는 1833년 6월 1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거룩한 집을 즉시 지으라고 지시하셨으며, 선택된 종에게 그 건물에서 권세와 권능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5편 참조)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로 이러한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었으며, 1836년 3월에 현대 최초의 성전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헌납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헌납식에는 고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성스러운 성전 안에 하늘 사자들이 나타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10 참조)

커틀랜드 성전을 세운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헌납한 지 2년도 안 되어 박해를 받고 내쫓겼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버려진 이 성스러운 성전은 평범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우선 미주리 주로 이주했으며 훗날 일리노이 주 나부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다시 지으라는 계시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강제로 추방당할 것이 뻔하고, 성전은 완공된 후 곧 버려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완공하고 내부를 합당하게 꾸미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나부 성전은 1846년



▲ 1893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는 130개가 넘는 성전이 건축되고 헌납되었다.

4월 30일에 헌납되었으나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나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빈곤한 생활 속에서 희생으로 지은 성전을 버려야 했습니다. 1848년 11월에 나무 성전은 방화로 불탔으며, 1850년 5월에는 검게 그을린 채 남아 있던 벽마저 회오리 바람으로 무너졌습니다.

1847년 7월 24일, 물론 개척자들은 현재 솔트레이크시티가 있는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며칠 뒤,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브리검 영은 들풀이 무성한 불모지 한 곳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 아름다운 템플스퀘어가 있는 곳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습니다. 1892년 4월 6일에 관석이 놓인 솔트레이크 성전은 4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완공된 성전은 그 이듬해에 헌납되었습니다.

신성한 임무



고대나 현대를 통틀어 모든 성약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임무로

여겼습니다. 성전이 예배당이나 교회, 회당이나 성당보다 중요한 건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 세워진 건물이고, 주님과 성신권 소유자 사이에 가장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며, 가장 높고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헌납된 곳입니다. 더욱이 참으로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집으로 인정하시는 곳이 되려면 성전을 지으라는 부름이 주어져야 하며, 성전이나 그 성전을 바치는 사람 모두가 합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다시 회복된 성신권을 소유하며, 성전을 건립하고 살아 계신 참하나님과 예배를 위해 헌납된 성전을 보존하며, 지상에서는 물론 무덤 저편까지 매어 주는 효력이 있는 신권 의식을 그 성스러운 건물 안에서 집행할 신성한 의무를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House of the Lord: A Study of Holy Sanctuaries, Ancient and Modern(1968년)에서 발췌.

후기에 지어진 성전 목록을 보고 싶다면 temples.lds.org를 방문하십시오.

- ▲ 멕시코 탐피코 성전. 2000년 5월 20일 헌납.
- ▲ 사모아 아피아 성전. 1983년 8월 5일 헌납. 2005년 9월 4일 재헌납.
- ▲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1999년 3월 19일 헌납.



성전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성전 침례반은 열두 마리 황소 등 위에 놓이는데(역대하 4:2~4 참조), 이 황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신 구주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는 침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이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 ◀ 스테인드글라스, 일리노이 내부 성전(맨 왼쪽).
- ◀ 침례반, 유타 드레이퍼 성전.
- ▲ 침례반, 애리조나 길라밸리 성전.



의식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한 개요를
 배웁니다. 후기 성도들은
 전세와 현세의 삶,
 세상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주요
 역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배웁니다.

- ▲ 의식실, 뉴욕 맨해튼 성전.
- ▶ 의식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해의 왕국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방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영원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만족, 내적 조화, 평화를 나타냅니다.

◀ 해의 왕국실,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

▲ 대계단, 유타 오커마운틴 성전.



인봉실에서 신랑과 신부는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합니다.



- ▲ 무늬를 새겨 넣은 탁자,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 ▶ 의식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성전 봉사, 성전 축복

그 어떤 희생보다 값진 성전 결혼

게오바니 메디나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두 번째 사업이 잣더미로 변한 후에야 약혼녀 베니를 성전에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성전에 가는 것이 신앙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성전 결혼을 우리 목표로 삼을 때만 해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험 받을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베니와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우리의 고국인 파나마에서 만났다. 파나마 법률에 따라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성전인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으로 가기 바로 전에 일반 결혼을 해야 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여행이 되겠지만 인봉을 받는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청혼을 한 다음날, 나는 직장을 잃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버스

관광 안내를 하며 돈을 벌기로 했다. 그런데 버스가 첫날 밤에 고장이 났다.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은 나는 티셔츠를 팔기로 했다. 공장에 셔츠를 가지러 간 날 아침, 전날 밤에 공장 건물이 모조리 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희망도 연기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다음 성전 여행까지는 불과 몇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 들인 온갖 노력은 예상치 못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시꺼먼 잣더미를 뒤로하고 베니를 찾아갔다.

나는 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베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 때문에 결혼하려 했으면 벌써 했을 거야. 하지만 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야.”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 하나를 통과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신권의
인봉 권능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전
결혼을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1984년
12월 14일 헌납.



느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나가자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보수가 부족했지만 나는 가구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 후 친절하신 감독님께서 버스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셨다. 그분의 제의에 기뻐지만 옳은 일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자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버스 요금 대신 베니에게 일자리를 주실 수 있는지 여쭙 보았다. 감독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 성전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마련한 후에 우리는 일반 결혼을

하고 드디어 교회 회원 열 명과 함께 과테말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운송업자들이 벌인 대규모 파업으로 우리가 탄 차는 코스타리카 국경에서 멈춰 섰다. 이틀간 국경에서 기다린 끝에 우리를 태워 온 운전 기사는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베니와 나, 형제 두 명과 다른 한 부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되돌아가는 버스를 보고 나서 우리는 코스타리카를 향해 걸었다. 니카라과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길가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자며

계속 걸었다. 그곳에서 수도까지 가는 택시를 탔고 수도에서 온두라스 국경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이틀 동안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성전에 도착했다. 몸은 지저분해져 있고 피곤했으며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행복했다.

다음날, 온갖 시련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영원히 인봉되었다. 우리는 온갖 힘든 일과 기다림과 걱정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베니와 나는(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전에 간 사람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단련되었다. 그것은 내 생애에 가장 위대한 경험 중 하나였다.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목표가 이 세상에서 끝날 사랑을 위해서였다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신권의 인봉 권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전 결혼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전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프란세스 더블류 호지슨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커다란 희망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남편과 나는 발견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영적인 보상을 주셨다. 우리 가족이 받았던 영적인 보상 중 가장 큰 것을 말하라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생활이 좀 더 복잡해지면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그분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주님이 계신 그분의 성전으로 가져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녀들이 십 대가 되자 우리는 그들이 중대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가장 우려한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중대한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울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성전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참석했을 때 큰 힘과 축복을 얻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끼고 합당한 생각과 태도를 갖기 위해 기도한다. 적절한 경우, 우리는 성전에 있는 동안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과 특정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상한다.

때때로 응답은 빠르고 명확하게 왔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는 우연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우리가 행한 일로 하늘 축복이 실제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때때로 응답은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한번은 대학에 다니는 딸아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이 많은 감독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다른 자녀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다. 각 자녀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전 봉사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하늘 축복이 내려졌음을 느낀다.

성전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이 자녀를 축복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은 고용 문제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한 남편이 그

문제를 성전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 그날 주님께서는 남편을 축복하셔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특별한 성구를 영감으로 주셨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전을 펼쳐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고 기뻐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전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는 성구를 알려 주셔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성전에서 이러한 원리를 배운 것에 감사한다.

악이 만연하고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큰 힘을 휘두르는 세상에서 주님의 집에 가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된다. 가족을 돌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보호와 위로를 구할 때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어린이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우고 그분과 성약(또는 약속)을 맺고 큰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인봉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전 의식이라 부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여러분은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많은 분이 침례와 확인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몸은 죽었지만 그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두 살이 되면 성전에 가서 조상들을 대신해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침례와 확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침례를 받을 때처럼,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을 때에도 흰옷을 입습니다.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가족 명단을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엔다우먼트

성전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엔다우먼트이며 이것은 “은사”를 뜻합니다.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성약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집에서 어느 성전이 가장 가까운지 아세요? 그 성전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세요.

▲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 2000년 10월 1일 헌납.



이 사진에 나오는 거울을 보세요. 어떤 인봉실에는 이와 같은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여러분의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아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인봉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 날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해의 왕국실이라 부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이 있습니다. 해의 왕국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분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결혼할 때 그들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됩니다. 이것은 그들과 그 자녀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래에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이것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전 추천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준비되었고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성전에 가기 전에 여러분은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특별한 접견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십일조를 내는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정직한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아래 길을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계명에 순종한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게 생활하고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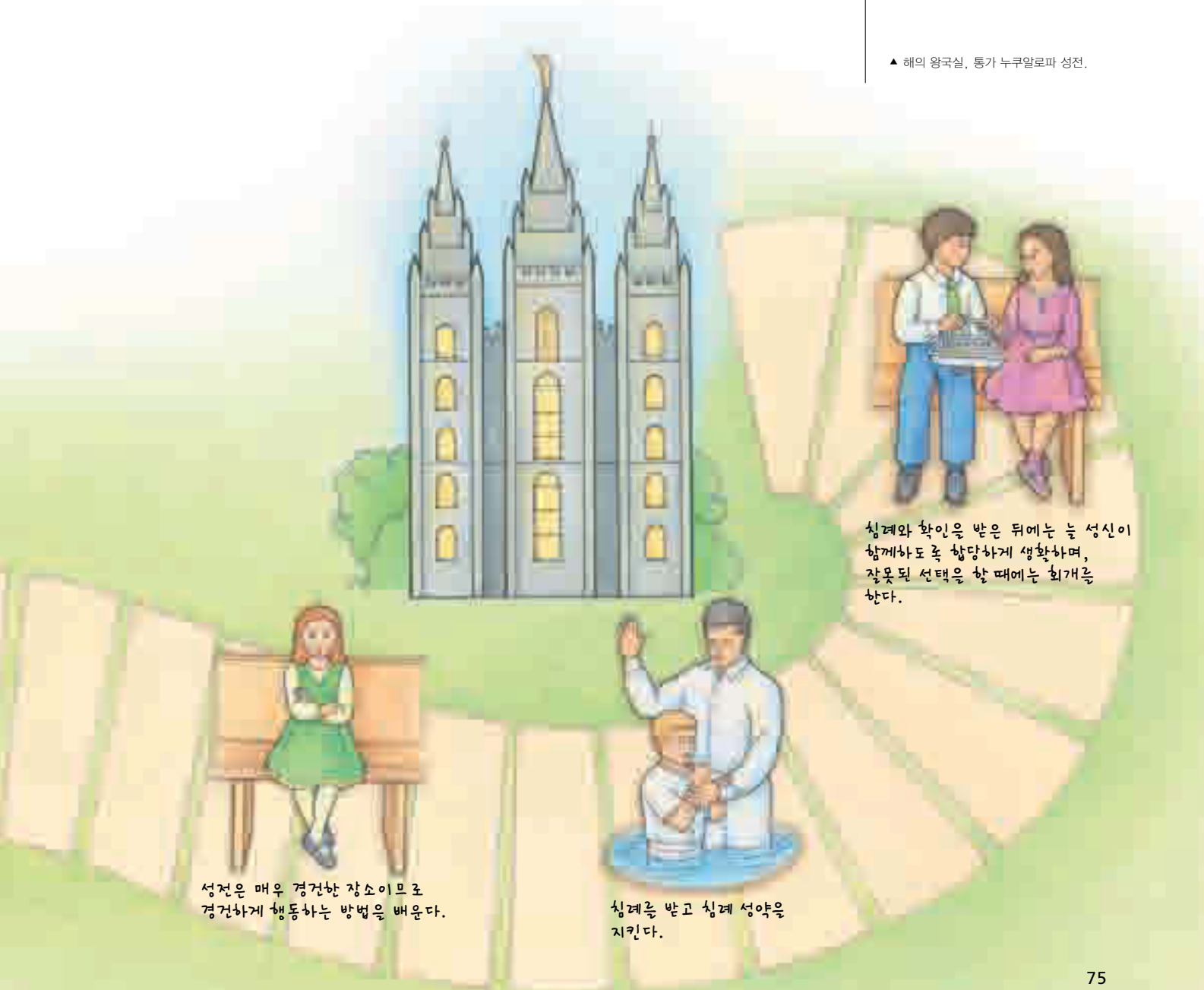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성전 축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성전이 가까이 있다면 성전 뜰을 거닐면서 그곳에 있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성전 사진을 비치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도록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해의 왕국실**과 64쪽에 나오는 사진을 보세요. **해의 왕국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해의 왕국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성전은 매우 경건한 장소이므로 경건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

침례를 받고 침례 성약을 지킨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뒤에는 늘 성신이 함께하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회개한다.



성전을 여러분 삶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성전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하십시오

만 12세 이상인 합당한 청년 청년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도록 성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런 봉사를 할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이른 아침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은 한 무리의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옷은 모습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한 청년이 돌아서서 성전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¹

엘라매마 주 대프니에 사는 열세 살 된 제시카 한은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성전까지 가는 데 다섯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시카는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고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면서 훌륭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최대한 자주 성전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국 서울 성전, 1985년 12월 14일 헌납.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추천서 질문에 마련하신 표준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전 사업을 도우십시오

성전에 자주 갈 수 없더라도 성전 사업을 도울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에 관해 배우고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어린 자녀를 돌보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는 가족에 큰 비중을 두므로 여러분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진실로 주님의 집이라는 간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성전은 매우 성스러운 장소이므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높은 생활 표준을 마련하셨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추천서 질문에 마련하신 표준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표준과 성신의 인도는 고요하면서도 가장 큰 유혹이 따르는 시기에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이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²

주님께서 마련하신 표준대로 생활한다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질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은 오늘날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

선라이즈에 사는 열여섯 살 된 말론 루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성전 결혼을 계획하십시오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열여섯 살 된 애니카 라이트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전을 보면서 언젠가 그곳에서 결혼할 날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약속은 주님과 맺는 약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성전 사진을 두십시오.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을 날을 고대하십시오.

유타 주 아메리칸포크에 사는 열네 살 된 조디 헤즐베이커는 일반 공개 때 유타 마운트팀파노고스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조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지날 때, 저는 잠시 멈춰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을 바라보자 아름다운 결혼 의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는 성전이야말로 제가 결혼하게 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해의 왕국으로의 여행”,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5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4쪽.

자주 묻는 질문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성약을 맺으며,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의식들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의식 중 하나는 엔다우먼트입니다. 엔다우먼트라는 말은 “은사” 또는 “수여”를 의미합니다. 이 은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을 배웁니다. 성전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맛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전 의식에는 인봉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인봉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다면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으면 돌아가신 조상들을 대신해 이러한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와 확인, 엔다우먼트, 인봉과 같은 필수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의식들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습니다.

성전 내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은 평화롭고 성스러운 곳이며, 세상적인 근심과 혼란으로부터 성별된 곳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장소는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름답고 조심스럽게 유지됩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성스러운 일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영을 충만하게 느끼고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시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규칙적으로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에 갈 때는 어떤 복장을 해야 합니까?

성전에 갈 때는 단정한 안식일 복장을 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눈에 띄는 복장이나 외모를 삼가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함으로써 주님과 주님의 집을 경건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영을 초대하십시오.

성전에는 안식일 복장을 흰 옷으로 갈아입는 개인 탈의실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과정은 일시적으로 세상을 뒤로 하고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흰옷은 순결을 상징하며,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흰옷을 입음으로써 모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는 대체로 전임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이나 성전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부름장을 받지 않았고 성전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십 대 후반이나 이십 대 초반인 독신은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원은 침례 및 확인을 받고 최소한 1년 뒤에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 해의 왕국실, 유타 마운트팀파노고스 성전.

여러분의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준비될 때가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전에서 경험한 것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 내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비롯한 성전
성약과 의식은 성전 밖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성한 것을 성전 밖에서 논하는
일을 피함으로써 그것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비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벼운 태도를
취하지 맙시다.

**성전에서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구주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환경, 옷차림에는 상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통해
상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제 성전 결혼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그분께 헌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표준대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없는 사람도 성전 뜰에
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전에는
가족이 인봉을 받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가족을 둔 신랑
신부는 감독이나 교회 회원을
초대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대기실에서 있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감독과 함께
준비하여 추천서가 없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성전 결혼 후에
특별한 모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느끼고 영원한
결혼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어떠한 예식을 거행하거나
서약을 교환해서는 안되지만,
반지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감독이 마련한 성전 준비 세미나에
참여하며, 이 책자에 나오는 성구와
기사를 공부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정하신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십시오.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내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정직하게 거래하고, 가족들이 교회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성전 성약을 지킴으로써
성전에서 더 높은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십시오.

▲ 유다 조단리버 성전. 1981년 11월 16일 헌납.
▶ 일리노이 나부 성전. 2002년 6월 27일 헌납.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나 하늘에서 살았네

쉽게 편곡한 노래

꾸밈없이 ♩ = 48-58

1. 나 오 래 전 - 에 하 늘 에 서 살 았 네
 2. 우 리 가 하 늘 로 돌 아 가 기 위 해 서
 3. 선 택 된 예 수 님 구 세 주 로 오 셧 네

사 람 들 과 함 께 사 랑 하 며 살 았 지
 큰 사 랑 지 니 함 께 누 군 가 필 요 했 네
 영 광 스 런 이 름 림 약 과 죽 음 이 기 고

하 모 나 님 영 아 름 다 운 계 획 발 표 했 네
 나 든 기 다 광 리 구 한 는 아 버 지 자 지 었 신 그 만 곳

지 구 와 인 간 의 영 원 한 구 원 계 획
 아 버 지 께 영 광 돌 리 라 주 님 말 하 셧
 그 곳 에 서 함 께 살 수 있 단 희 망 주 셧 네

작사 및 작곡: Janeen Jacobs Brady, 1934년생. © 1987 Janeen Jacobs Brady.
 편곡: Janice Kapp Perry, 1938년생. © 2009 Janice Kapp Perry.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 용도로만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56



토 마스 에슨 몬슨 회장은
“하늘은 얼마나 멎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은 전혀
멀지 않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축복”, 13쪽 참조